

(주)천하제일사료가 추천한 덴막목장

풍부한 조사료 급여로 1등급 원유만을 생산하는 '덴막목장'의 성공 스토리

» [취재 : 현시영]



▲ (오른쪽부터) 김천호, 권영미 부부와 천하제일사료 안경철 부장, 이진우 과장

낙농의 대외적 홍보 중요

작은 눈발이 제법 날리던 날, 기자가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에 자리잡은 덴막목장. 김천호(50)씨와 부인 권영미(47)씨의 25년 삶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곳이다.

김천호 사장은 25년 전인 1982년, 당시 상고 졸업 후 회사생활을 하던 중 낙농을 하시던 아버지의 권유로 목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엔 소 규모였지만, 점차 두수를 늘리기 시작해 현재는 착유우만 70두가 넘는 꽤 큰 규모의 목장이 되었다. 목장경영에 모든 것을 걸었던 김천호 사장은 IMF여파로 국내경제가 위축될 당시인 1998년에는 축산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낙농분야에서는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재 이천시 검정연합회 회장과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천호 사장.

“산유능력향상과 낙농가가 개선할 사항, 젖소의 개량을 목적으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은 다른 곳에 비해 개량된 젖소가 많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시·군 단위에 축산과가 있는 곳은 3군데 밖에 없는데, 품평회를 개최하

는 이유도 전국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야 낙농분야라던지 축산분야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적극적으로 행사준비를 하고 있지요.”

외부 행사준비를 위해 365일 바쁘지만, 그럴때마다 부인 권영미(47)씨가 바쁜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왔다.

천하제일사료 장호원 대리점의 이진우 과장은 “사장님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바쁘세요. 일주일에 한번씩 찾아뵙는데 보통 오전 11시만 넘으면 밖에서 찾아요. 왜 안오시냐고...” 라고 말하며 바쁘더라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를 유지하면서 성적도 좋은 건 사모님의 역할이 큰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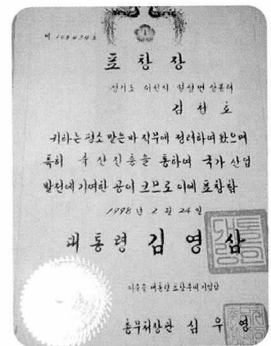
평균산차 2.7 산의 우수목장

덴막목장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천하제일사료와 거래하고 있다.

취재 중 함께 동행한 천하제일사료 제2판매본부 안경철 지역부장은 준비해온 자료를 내놓았다.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1월까지의 덴막목장 검정 데이터였다.

경산우, 착유우, 분만두수, 초산분만두수와 유량, 유지율, 체세포수, 수정두수와 공태일, 건유일까지 한번에 알아볼수 있게 표로 작성되어져 있었다.

“평균유량은 35kg이고, 체세포수도 1등급이에



▲ 98년도에 받은 대통령 표창

요. 성적도 우수하지만 중요한 것은 덴막목장은 평균 산차가 2.7산이라는 거죠. 전국 평균이 2.1~2.2산 이에요. 착유우가 20두정도 되는 농장에서 산차가 3산 정도 나오는 곳도 있지만, 착유우만 70두가 넘는 목장에서 이 정도 산차면 상당한 성적이에요. 절대 쉬운 숫자가 아니거든요. 경산우도 거의 대부분 3산 이상인데다, 평균 유량도 34~5킬로가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전체 성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이미 궤도에 올라 있는 목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성적이 아니라는 안경철 부장의 설명은, 덴막목장이 그동안 부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일군 우수 농장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풍부한 조사료급여로 소화기 질병 걱정 뚫

3산 이상의 경산우가 대부분인데다 유량도 35킬로로 꾸준히 유지된다. 도대체 비결이 뭘까?

목장 입구에서 기자를 놀라게 한 것은 우사 앞마다 한 가득씩 쌓여있는 톨 페스큐였다.

소들은 조사료를 자유채식하고 있었다. '조사료 가격이 만만치 않을텐데..혹시 취재오는걸 알고 일부러?' 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오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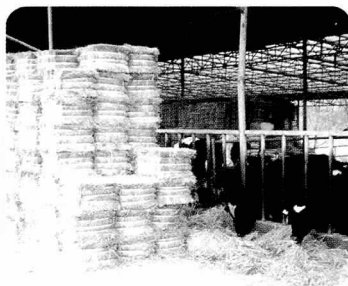
“저희 목장이 일하는 사람을 두지 않고 부부 노동력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생산비를 조금 줄이고 조사료 급여를 풍부하게 하자는 생각에서예요. 소는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조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소화기 질병 예방에는 조사료만한 것이 없어요. 다른 농장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볏짚을 조사료로 쓰지 않아요. 영양가치도 떨어지는데다 가격도 수입조사료보다 비싼 측면이 있어요. 화분과와 두과건초를 섞어 급여하고 있어요.” 김천호 사장의 말이다.

덴막목장은 1만 여평의 대지에 사료포를 갖추고 옥수수과 연맥을 이모작으로 재배해 엔실리지로 만들어 소에게 급여하고 있었다. 또한 티머시, 알팔파베일, 전지면실, 비트펄프, 옥쇄실, 버뮤다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조사료를 적절히 섞어 급여하고 있다. 조사료 창고에는 각각의 조사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안경철 부장은 “덴막목장은 자동급여기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TMR 급여형태도 완전TMR과 세미TMR로 나누어지는데, 덴막목장은 세미TMR 방식으로 급여하고 있죠. 배합비 상에서 농후사료를 따로 배합하고, 유량에 따라서 자동급여기에서 유량에 맞게끔 농후사료의 양이 셋팅되



▲ 창고에 가득 저장된 양질의 조사료



▲ 덴막목장의 소들은 양질의 조사료를 마음껏 자유 채식하고 있다.





어저 급여가 되요.”라고 말하며 완전 티엠알 같은 경우 평평한 유량을 보이지만 세미 티엠알로 급여할 경우 젓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가장 이상적인 급여 형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 천하제일사료가 제공하는 영양만점 농후사료

목장 일은 효율적으로~

김천호 사장은 독일에서 직수입한 중고 콘-하베스터(옥수수 수확기)를 소유하고 있다.

김 사장이 소유한 모델은 150마력급 존디어 트랙터로 독일의 건초 조사료 생산장비 전문업체인 KRONE사가 제작한 옥수수 수확기였다. 현재 유럽에서는 트랙터 부착용 보다는 500~1000마력급의 전용기종인 초대형 콘-하베스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 콘-하베스터 3~4조는 독일에서 현재 대량생산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주문생산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 기계는 임작업용으로 옥수수를 수확하여 엔실리지까지 해 주는 작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통 하베스터는 옥수수의 잎, 줄기, 열매를 통

제로 베면서 동시에 내부에 설치된 회전칼날에 의해 4~5cm의 길이로 잘라주고 절단된 옥수수의 잎과 줄기, 옥수수열매는 누런색의 토출관을 통해 배출되며 이것을 트레일러나 트럭에 실어 운반한 다음 사일로에 넣어 약 45일후부터 1년 이상 저장하며, 소에게 급여할 때 조사료로 매우 좋다.

일반 농가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하베스터 기계를 들이는 것이 큰 무리지만 김천호 사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베스터 기계 하나로 일손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과감한 투자는 아끼지 않는다. 우사 내부에는 소들의 혈액순환 위해 설치한 회전 브러시도 볼 수 있었다.

슬하에 네 딸을 두고 있는 김천호, 권영미 부부의 바램은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랄수 있도록 힘껏 뒷바라지를 하는것. 첫째 딸은 한국에서라면 중학교 2학년에 다닐 나이지만 일찌감치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다. “낙농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라면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거죠.” 라고 말하는 김천호 사장.

앞으로 덴마크목장 이라는 이름처럼 한국의 작은 덴마크가 되길, 김천호, 권영미 부부의 땀방울로 네 자녀모두 훌륭히 성장하길 바라며 취재를 마쳤다. ⑤

◀ 김천호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콘-하베스터

